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오늘 개봉작
 '나는 내일...' '나의 엔젤' '다시 태어나도 우리'

섬세한 감정선 '눈에 띄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섬세한 감정선이 돋보이는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나의 엔젤' '다시 태어나도 우리'를 10월 둘째 주 작으로 12일 개봉·상영한다. 나나츠키 타카후미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는 정방향의 시간을 사는 만화화도 타카토시와 이와 반대로 역방향의 시간을 살아가는 예미가 단 한 번 20살이 되어 함께하는 30일간의 기적 같은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소라니' '양지의 그녀' 등 감각적 연출로 일본 로맨스를 이끄는 신형 감독 미키 타카히로가 연출을 맡았으며,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클로즈드 노트' 등 각본가 요시다 토모코가 함께해 영화의 감성을 더했다. 영화는 개봉예정작 관객설문조사 최다 득표 작품으로 시간을 다루는 독특한 설정과 러브스토리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럽의 거장 자코 반 도미엘 감독이 제작을 맡은 영화 '나의 엔젤'은 앞서 보이지 않는 소녀 마들렌과 몸이 보이지 않는 소년 엔젤의 운명적 사랑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다. '최후의 연인들' '트리플'로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실협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해리 클

레브 감독이 연출을 맡아 기발하면서도 섬세한 연출을 선보인 작품이다. 작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엔젤'의 존재를 전달하기 위해 1인칭 시점의 촬영기법과 섬세한 사운드 연출, 동화 같은 영상미를 통해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또 한편의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대상작으로 인도 북부 라다크 사티 지역에서 린포체(전생의 업을 잊기 위해 환생한 티베트 불가의 고승)가 된 어린이 양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생을 기억하는 아홉 살 소년 양부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노스승 우르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담았다.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아름다운 기러기상 수상,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 진출,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제43회 시애틀국제영화제, 제6회 모스크바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서학아트스페이스서 권은경 사진가 '언피니쉬드, 문' 개인전

권은경 사진가의 '언피니쉬드, 문' 개인전이 오는 18일까지 전주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문'을 매개로 하여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기 성찰을 담아낸다. 두툼히 덧칠된 된 그림 속 '문'에는 아련한 이야기가 스며있다. 전시명 '언 피 니 슈 드 (unfinished)'는 허물어져가는, 이미 사라진 마을들의 끝까지 않는 또 다른 생수를 의미한다. 작가가 표현하는 '문'은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와 문턱을 넘어 엄마의 목소리에 따라 집을 들어가는 감정적 회상의 변화를 상징하며, 성인이 된 후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적 감정의 문으로 작용한다. /정해은 기자

▶ 소리문화전당, 뮤지컬 '구텐버그' 무대

청춘들 꿈 향한 용기와 도전

14일 오후 2시·7시 연지홀서 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청춘들의 꿈을 향한 용기와 도전을 그린 뮤지컬 '구텐버그'를 14일 오후 2시와 7시 연지홀 무대에 올린다. 뮤지컬 '구텐버그'는 버드와 더그라는 두 신인 뮤지컬 작곡가와 작가의 브로드웨이 진출을 향한 이야기다. 극은 활판 인쇄술의 최초 발명가 구텐버그(구텐베르크)가 실은 와인 양조장에서 포도즙을 짜는 광범한 사람이었다는 기발한 상상력에서부터 시작한다. 버드와 더그는 자신들이 쓴 뮤지컬 '구텐버그'를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줄 프로듀서를 찾기 위해 임시로 극장을 빌리고, 유명 프로듀서들을 초대해 자신들이 직접 노래하고 연기하며 리딩 공연 형식으로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은 2인극으로, 버드 역에는 '난쟁이들' '팬텀싱어' 등 공연장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에서도 주목하는 조형균이 연기한다. 상대역인 더그 역에는 최근 대학로의 대세 뮤지컬 배우이자 '육룡이 나르샤', '뉴티플 마인드' 등 드라마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정문성이 맡았다. 이들은 반유대주의 소녀·구두둑이·취객·의사 등 20여 명이 넘는 등장인물을 구별하기 위해 각각의 역할이 적힌 모자를 바꿔가며 연기하며, 한 대의 피아노와 최소화된 세트·소품 등으로 극을 이끌어 간다. 녹록치 않은 현실에 힘들고 지쳐도 끈기와 열정으로 포기하지 두 남자의 무대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도 꿈을 꺾어 한다고'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냐고'.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읍사에서 펼쳐지는 발레의 백미

17일 발레 갈라 콘서트

전북발레시어터는 발레 작의 백미로 꼽히는 장면을 한데 모은 '발레 갈라 콘서트'를 17일 오후 7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전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발레 갈라 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위·전북도문화관광재단·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

예술회관·전북발레시어터가 주관한다.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급 발레리노가 활동하는 이원국발레단의 '차이코프스키 파드되'를 비롯해 박재홍 한성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센트럴발레단의 '돈키호테', 정읍과 전북도를 대표하는 전북발레시어터의 '파우스트'와 '봄치녀' 그리고 (사)예진예술원의 '찰리 채플린' 등으로 꾸며진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